

보도시점 : 2026. 6. 18.(목) 06:00 이후(6. 18.(목) 석간) / 배포 : 2026. 6. 17.(수)

##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설계 공모전 도전으로 보람찬 여름방학 보내세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총 상금 2,8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상장 26점  
- 대학(원)생이 7월 31일까지 참가 신청 ... 8월 28일까지 작품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35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설계 공모전 주제를 6월 18일에 발표하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후원)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공간연구원

○ 올해 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 주제는 ‘시·공간의 적층’이며, 한옥 부문 주제는 ‘다시, 공공의 한옥’으로 장소(대지, Site) 제한은 없다.

○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올해 제시한 주제를 적용해 미발표 창작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공학과의 제한은 없다.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건축사 자격 소지자는 제외

\*\* 패널(A2크기 2쪽) 및 PPT(15쪽 이내)를 1인 단독 출품 또는 공동 출품(3인까지 1개 팀을 구성하거나, 다른 전공자 등과 연계도 가능. 단, 1인당 1개 작품만 참여 인정)

○ 참가 학생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일반·한옥 각 1명(팀),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26개의 상장과 총 2,8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일반) 대상 1(국토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3(국토부 장관상, 각 200만원), 우수상 5(대한건축사협회장상, 각 100만원), 입선 5(대한건축사협회장 상장)  
(한옥) 대상 1(국토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국토부 장관상, 200만원), 우수상 5(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상, 각 100만원), 입선 5(LH 사장 상장)

○ 시상식은 11월경 국토부가 주최·주관하는 ‘2026 한국건축문화대상’ 본 행사에서 진행된다. \* 일시와 장소는 추후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공개

□ 학생설계 공모 참가 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작품 출품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 17시까지이다.

\*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http://kaa.kira.or.kr>)

○ 또한 주제문 및 작품 출품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7월 6일 14시 수원 공공한옥 ‘남수헌’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http://kaa.kira.or.kr>)에 공지 예정

○ 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에서는 ‘시·공간의 적층’이라는 화두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창의적인 건축 해법을 찾고자 한다.

○ 한옥 부문은 ‘다시, 공공의 한옥’이라는 주제 아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옥의 공간 원리와 생활 문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

□ 한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이후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 시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 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 국토부 장관상 26점, 후원기관장상 등 총 67점

○ 올해부터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합해 보다 폭넓게 운영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경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학생설계 공모전으로 우리 시대의 건축공간에 대한 청년의 새로운 해석을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면서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책임자	과 장	최아름 (044-201-3775)
		담당자	사무관	김보민 (044-201-3779)
			주무관	이승희 (044-201-3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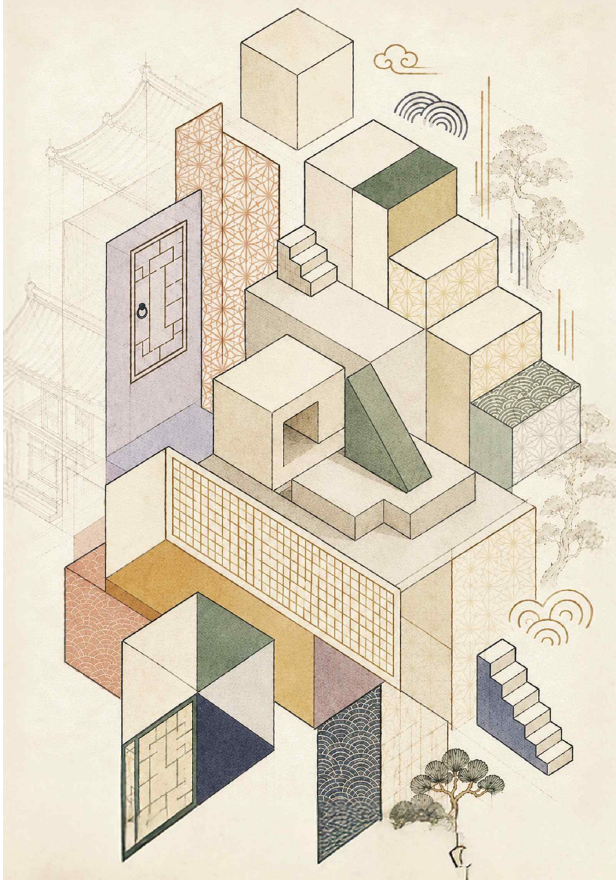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 TOMORROW

# 2026 한국건축문화대상



## 학생설계 공모전

당신의 생각이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가 됩니다.



### 공모 주제



일반 부문

#### 시·공간의 적층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창의적인 건축 해법 제안



한옥 부문

#### 다시, 공공의 한옥

공공성 중심의 한옥 공간 원리,  
생활 문화 조망·가능성 탐색

### 참가대상

전국 대학생\* 누구나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건축사 자격 소지자는 제외

### 출품안내

미발표 창작 작품 - 패널(A2) 2매, PPT 15쪽 이내

\* 1인 단독 출품 또는 공동 출품(최대 3인), 다른 전공자 등과 연계 가능

### 시상혜택

총 상금 2,8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총 26점 시상

### 공모일정

참가 신청 : 26.7.27(월) ~ 26.7.31(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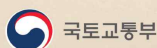
작품 제출 : 26.8.26(수) ~ 26.8.28(금) 17:00까지

### 작품접수

한국건축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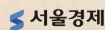
누리집(<http://kaa.kira.or.kr>)에서 접수

주최/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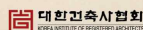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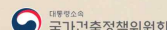
서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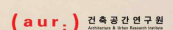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aur) 건축공간연구원

## 시·공간의 적층

## Layering of Time and Space

건축은 땅 위에 새겨진 시간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 위에 동시대의 삶을 정교하게 직조하는 지적인 기록 행위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철거를 통한 '단절의 건축'이 한계에 다다르고,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밀도 성숙 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 용적을 채우는 작업을 넘어 대지에 축적된 시간의 결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파편화된 기억을 조화로운 공간의 층위로 재구성하는 고도의 통찰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리적 층위에서 건축은 이전 세대에서 다져놓은 지형적 기틀, 오래된 가로망의 원형, 그리고 소멸해 가는 인공물의 잔상과 조우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파편들은 새로운 구조물과 병치(Juxtaposition)되면서 단순한 보존을 넘어 입체적인 공간적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도시적 맥락에서도 적층의 원리는 과거의 산업 기반시설과 현재의 생활 인프라, 자연적 흐름과 인위적 개입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도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합니다.

과연 건축은 어떠한 시·공간적 단서들을 포착하여 도시의 서사(Narrative)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사회적 관점에서 적층된 건축은 세대 간의 단절된 기억을 잇는 '장소의 그릇'이 됩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약화된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물리적 흔적의 복원을 통해 회복하고, 잊힌 장소성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의 경계는 시간의 축 위에서 유연하게 재편됩니다. 과거의 유산이 지닌 공간적 잠재력은 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결합하며, 규격화된 신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입체적인 풍요로움과 창조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정보와 실제 공간의 결합은 시·공간의 적층이 마주한 새로운 지평입니다. 데이터로 박제된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물성(Materiality)을 지닌 건축적 실체로 변환하고, 증강된 기술 환경 안에서 시간의 깊이를 어떻게 감각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건축은 차가운 정보의 나열이 아닌, 축적된 시간의 가치를 인간의 체득된 경험으로 치환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 공모전은 '시·공간의 적층'이라는 화두를 통해 대지가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층위'를 발굴하여 현대적 건축 언어로 시각화하고 기능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를 미래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창의적인 건축적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가 축적해 온 복합적 시간성을 통찰하고, 대지의 맥락 위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시대의 정교한 '켜(Layer)'를 기대합니다. 도시의 넓은 페이지 위에 여러분이 새겨넣을 새로운 문장이 우리 건축의 패러다임을 더욱 풍성하게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 다시, 공공의 한옥

Re: Public Hanok

한옥은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담아온 생활 공간입니다. 마당과 대청, 툇마루와 처마로 이어지는 한옥의 공간 구조는 사람과 사람, 자연과 건축, 마을과 일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왔습니다. 한옥은 주거 양식이나 건축물의 범위를 넘어서 관계와 기억, 풍경과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며, 도시 디자인이 다양한 지역과 장소를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입니다. 한옥은 옛것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공건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대적 건축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옥이 지닌 개방적 경계와 자연 친화적 구조, 사람 중심의 공간 구성은 오늘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민하는 건축 흐름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마당이나 처마 아래 등에서 이뤄지는 공동체적 관계, 자연의 흐름을 수용하는 배치 방식은 현대에도 유효한 공간 가치입니다.

이번 공모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한옥의 공간 질서와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 공공 한옥을 살펴봅니다. 제안 대상은 도서관, 문화센터, 마을 공동 시설, 돌봄 공간, 복합문화공간, 청년과 어르신 공동체 시설, 지역 관광 및 문화 플랫폼 등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와 지역의 곳곳에서 한옥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 맺고, 새로운 공공성을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옥이 가진 공간 원리와 생활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오늘 우리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해법을 기대합니다.